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3> 장삼이사

남산에서 들을 던지면 그걸 갖는 사람은 '김·이·박(金·李·朴)'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전해온다. 뒤집어 이야기 하면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많다는 말이다. 중국에는 장삼이사(張三李四)라는 말에서 보듯 장(張)씨와 이(李)씨가 가장 많은 모양이다. 이씨는 두 국가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통계적 영광을 안았다. 장삼이사(張三李四)란 말은 '장씨의 세 번째 아들과 이씨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크게 배운 것 없이 신분적으로도 평민인 그들은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다. <경덕전등록>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빛나게 묘사돼 있는 경우를 유(有) 龍(龍) 興(興) 縮(縮) 선사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有) 유(有)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 물었다.



'한소식' 한 보통사람을 보라

“어떤 것이 학인의 본래자기입니까 (如何是學人本來自己?)”

이름 '어떤 것이 너의 본래면목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과 다르지 않다. 선사의 답변은 당연히 평범함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나라.”

선어록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대혜종교 선사의 법문에도 평범한 노파이야기가 나온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하천(無知下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선사께서 법문하는 날, 마침 답주 선화현 행정책임자로 있던 요동관(峽峽)자가 참석했던 것이 눈에 띄었다. 따라서 들으라는 듯 그 동네에서 있었던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 할머니는 결식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했다. 그야말로 의지할 짝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고 의지한 것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금강경>이었다. 항상 금강경을 외우며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산기슭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동네 처마 밑에서 이슬이라도 피하려고 하면 그 집주인들이 모두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금강경을 외우면서 탁발하러 다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가 헤가지면 돌아갔던 그 위치에 갈까마귀떼가 물

러들어 울어댔다. 무슨 일인가하여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그 할머니가 가슴에 금강경을 품고서 바위 앞에 죽어있었다. 까마귀들이 흠을 물어다가 그 노파를 덮어주고 있는 중이었다.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경경의 수지독송 공덕을 이룸없는 평범한 노파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아서 도인'도 있고 '죽어서 도인'도 있는 법이다.

이번엔 장삼이사의 진짜 장씨 이야기이다. 장덕(張德)은 이발사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사찰에 불건을 공급하는 일을 가업으로 해왔다. 그 인연으로 시간만 나면 잠선을 했고 자주 사람들을 따라 법문을 들으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흰해

움을 경험하게 한다. 스스로 깨진 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까닭에 주변사람들은 '한 소식' 한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렸다. 그때 아이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흰 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 이를 기록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문득 계승한

수를 지었다. 꽃 한송이가 여래를 받들고 나타났는데/ 육근(六根)의 표현이 원만하고 눈가에는 미소까지 머금었구나/ 하지만 해골이 원래 물인줄 알았더라면/ 마아부인 태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바늘 만드는 정(丁)씨는 천태지방 사람으로 서암사 방산(方山)선사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가 남겨놓은 선시가 있다.

농든지 잡든지 간에 한 줄기 신령스런 빛이 천지를 비추네. 흰 눈과 맑은 거울을 빌려와 이치를 밝혀놓은 두 작품은 모든 한 경지에 이른 계승이라고 하겠다. 송(宋)의 대혜종교 선사와 명(明)의 무은서중(1309-1386)선사가 이 글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그들이 평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까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등록>에는 이렇게 비꼬아 말하고 있다.

“불법(佛法)을 알고자 한다면 장삼이사(張三李四)에게 물어보고세간법을 알고자 한다면 고불총림(古佛叢林)에 들어가거라.”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마음 있어도 수행에 접근하기 어려워

간화선 대중화 세미나 주제발표 · 토론 요지

최상승 수행법, 언어를 뛰어넘은 진리, 출가자의 전유물, 깨달음 절대주의, '간화선'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듣기만 해도 난해하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어려워(?) 간화선을 대중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보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간화선 대중화 세미나'에서는 출가자는 물론이고 재가자의 반성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월암 스님(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이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서재영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간화선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서화동 기자(한국경제신문사), 김병주(조계종 포교원 신도팀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전망' (월암 스님)

현재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은 간화선 수행자가 철저한 간화정신에 토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화선만이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일반적 주장은 다원주의에 길들여진 이 시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역대 간화의 대중장들이 경전의 정형화된 언어를 뛰어넘어 일상의 모습 그대로가 진리임을 일깨웠듯이, 오늘날의 간화 수행자도 다시 이 시대와 사회대중이 요구하는 살아있는 언어와 보편적 개념으로 최상승의 수행과 깨달음(간화선)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간화선 정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경의 안목이라 말하는 중도정관(中道正觀)을 확립하고, 제정제 삼학을 뛰어넘어 하부, 인과법을 깊이 받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오로지 실참을 통해 깨쳐야만 일대시를 이룰 것이라는 깨달음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이론과 실질을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철저한 발심이 있어야 하며, 선지식의 지도도 필수적이다. 또 물질과 쾌락적 풍요에서 벗어나 승풍을 진작하고, 단지 오래 앉아있는 좌선형식주의에서 탈피해 동중수행(動中修行)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재가자 대부분은 선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더더욱 간화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불교적 인생관 확립이 필요하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사바타 센터 전하는주는 본래는 언제나 자유로이 됩니다.

이퍼타 마스터 김희균

● 전학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간화선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 (서재영 교수)

간화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근기에 맞게 보다 친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수행을 대중화하겠다는 것은 선을 위한 선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선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행에 있어 시간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간화선 수행을 어렵게 여기는 대중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인식전환과 함께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풍토

화두 받고 참구하기까지 수준 맞는 친절한 안내 필요

이론과 수행 겸비해 시대에 맞는 '행복禪' 찾아야

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친절하지 못한 수행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화두 참구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고 화두를 참구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먼저 타야 한다. 하지만 화두를 누구에게 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선지식을 찾아가 화두를 타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다. 바귀 말하면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간택 받아야 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두를 타도 그 이후 수행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중요하다. 이것이 없다. 수행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너무도 불친절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간화선을 대중을 위한 수행법으로 삼고자 한다면 수행자들의 수준에 맞게 친절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화두 참구가 출발이요 종착점이라는 경직된 수행 풍토의 변화도 필요하다. 간화선 이외의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도 관용적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화두만 들면 된다거나, 간화선은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최고의 수행법이라는 경직된 수행관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과 선화의 유기적 접촉도 필요한 요소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종단차원에서는 재가자 전용 수행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단위 사찰이나 소규모수행

모임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간화선 수행은 스승의 지도와 점검이 필수적인 만큼 지도자 양성과정의 제도적 틀을 갖추거나 기존의 전문 교육기관과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토론

미산 스님 : 철저한 발심이 중요하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월암 스님 : 출가 자체가 세속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출가 후에도 재발심을 유도하는 수행풍토가 진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화동 기자 : 대중화를 위해서는 재가불자가 대각성 운동을 해야 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앞서 수행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수행을 할 수 있는 풍토 속에서 간화선 대중화도 도모해야 한다.

김병주 팀장 : 지도와 불공에서 수행과 사회화함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찰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

서재영 교수 : 불교사상과 수행이 분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재가자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환경을 갖춰주지 못한 출가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월암 스님 : 중도연기관이 투철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불자를 개개인고 사찰, 그리고 종단이 연기적 중도관이 인생관 철학관 수행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 반성해야 한다.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간화선 대중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월암 스님 : 노력해야 한다. 간화선만이 최고라는 고집을 버리고 이 시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禪'을 고민해야 한다.

미산 스님 : 대중화한다고 해서 간화선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간화선 역시 잘못된 수행방식에 대해 추방된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 창조돼야 한다. 중도정관을 담아내면 된다.

정리 · 사진=한명우 기자



간화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법,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쿠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kukak.com

남매매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 지는 곳

기도도량 동해사에 오시면 기도의 참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유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곳 동해사
033)672-2900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타내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 발원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부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순	200만원
천수	1순	20만원
본불	1분	3,000만원
남산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 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협 729-02-117074 (예금주:유계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체국 700435-02-005878